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결의 오중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일구고 이재록 목사의 저서로 문서 선교를 활발히 이루가는 말레이시아 선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어떠한 연단이든 주 안에서 잘 통과하면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축복받을 수 있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히 번개함을 벗어내려면?

영적 성장의 큰 장애물인 번개함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스스로 노력할 때라야 이룰 수 있다.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았습니다!”

5월 은사 집회를 통해 오른쪽 편마비가 치유되고 견기조차 힘들던 허리 통증과 양쪽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을 치료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95호 2023년 6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부흥을 이뤄가다!

### 동북아시아 선교가 열린 말레이시아 선교 출장



우리 교회 말레이시아 선교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현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일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 서적들을 통한 문서 선교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5월 21일(주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만민교회(대표 소피아 집사) 창립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선 이성철 목사(마산만민교회 담임)는 오전 대예배 시 ‘믿음’(막 9:23~2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배 후에는 세례식을 집례했다. 오후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시에는 ‘참된 일꾼’(살전 5:16~18)이라는 말씀을 전한 뒤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므로 성도들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1).



이날 행사에는 파키스탄 욘 마니캄 목사와 신시아 사모도 참석해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신시아 사모는 7세 때 셀리아 병으로 인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한국에서 이재록 목사가 그녀의 사진 위에 기도해 주므로 급속히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전하는 산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편, 쿠알라룸푸르만민교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다음 날인 22일(월)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한 ‘우림북 카페 개원식’이 있었으며(사진 2), 이후 수도만민교회(대표 추평핑 집사)에 방문해 이성철 목사가 말씀을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23일(화)에는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활발히 사역하며 부흥하고 있는 SIB교회 담임 잉키 목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잉키 목사는 말레이시아의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와 협력해 노방 찬양 집회와 치료 집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선교팀을 요청했다(사진 3 가운데). 이날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교회 연합에서 주최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말레이시아 목회자들과 교제하며 향후 선교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4).

이 밖에도 정 드보라 사장(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 위싱진 집사(시부 자야 만민 지성전) 등 말레이시아 만민 리더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 사역뿐 아니라 문서 선교에 대해 논의하며 선교 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말레이시아 만민 리더들은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삶이 변화되어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영이 떠나는 등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므로 교회 사역과 문서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다. 이번 선교 출장을 계기로 앞으로 말레이시아 교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선교가 더욱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 함께 이루는 행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역 중에는 많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순종하고 섬기며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어려울 때 위로가 되며 전도하려는 곳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예비하기도 하였지요.

고린도의 디도우스도,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역하였지요.

이처럼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이 될 때 좋은 결실을 얻고 함께 이루는 행복을 맛보며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 풀무는 금을 연단 하거니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 하시느니라”  
(잠언 17:3)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 하십니다. 마음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연단을 통해 성결을 이뤄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과정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결을 이룬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한 연단도 있지요. 어떠한 연단이든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믿음 성장을 이루고 축복받을 수 있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롬 5:3-4).

## 1. 사람의 마음을 연단 하시는 하나님

연단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학업에 지쳐 피곤해하는 자녀들을 보면 안쓰럽지만, 공부를 대신 해 주거나 그만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면서 인내하라고 가르치지요.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고자 할 것입니다(잠 13:2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들면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연단을 통해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해 빼내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연단 과정을 금과 은이 단련되는 과정에 비유하셨을까요? 금이나 은은 대부분 광석에 다른 물질들과 함께 소량씩 섞여 있는 형태로 있어서 도가니나 풀무 등을 통한 정련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불순물은 타 버리고 다른 성분들도 하나하나 분리됩니다. 이러한 불순물처럼 사람 마음 구석구석에 뿌려 내린 모든 악이 벗어짐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해 연단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빼내 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는 나무의 잔뿌리에 해당하는 악의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큰 뿌리와 같이 버리기 힘든 대표적인 악들을 뽑아내면 잔뿌리에 해당하

는 여러 악의 모양은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믿음이 장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장성해지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므로 연단은 곧 축복입니다.

## 2.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는 경우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시험 환난을 주어 고통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지요(마 7:11).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환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지요.

질병이 오는 것도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든가, 욕심을 부려서 과식 또는 과음했다든가, 몸을 혹사했다든가, 그 외 진리로 행하지 못한 이런 저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미혹 당하는 것도 욕심내다가 결국은 진리를 떠나 불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어떤 시험 환난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 마음에 있는 욕심이 발동되도록 역사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성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

는데 성결한 마음을 이뤄야 할 자녀들이 죄를 버리지 않기에 징계를 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즉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길에서 돌아키도록 징계하시는 것이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쳐 주고자 하셨는데 끝내 돌아키지 않으니,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11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 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예케 하시려고 징계를 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 먹게 한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종신토록 흠을 먹고 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뱀은 실제로 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나 쥐 같은 것을 잡아먹고 삽니다. 여기서 뱀이란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말하며, 흠이란 흠으로 지어진 육의 사람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흠으로 지어진 사람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만큼 원수 마귀가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가져다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시험 환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가하심으로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악을 버리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악의 모습을 빼내어 온전케 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드시기 위해 연단을 가하시지요. 혹여 자기 잘못으로 인해 연단을 받을지라도 이를 통해 값지게 나올 것을 믿고 감사하면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검사나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과연 응답받을 만한 믿음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간구하고 소원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므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경우는 설령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험에 들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못 받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시험이나 환난이 임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 3.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온 요셉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렸을 때 장차 자신이 매우 존귀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꿈과는 달리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타국의 노예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성실함으로 인해 집주인 보디발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서 그 집의 모든 제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다른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정도를 지켜 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어 결국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감히게 됩니다. 비천한 노예 신분에서 죄수라는 더 낮은 자리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육적인 요셉의 환경을 보면 참으로 불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창 39:2~3). 요셉의 모든 연단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 그는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어 전옥에게 인정받아 다른 죄수들까지 관리하며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왕이 꿈의 해석하게 되었고, 강대국 애굽의 왕 다음가는 자리에 올랐지요. 요셉의 나이 서른 살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애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이 받아 온 연단은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머리 되고 존귀해지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발견해 버릴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나아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단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 변개함을 신속히 벗어내는 방법

‘변개함’이란, 자기의 사사로움을 좇아 진리 안에서 처음 정한 바를 바꾸는 것으로 주 안에서는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선천적으로 끈기가 없고, 쉽게 싫증을 내며, 포기 잘하는 습성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 1. 선불리, 함부로, 쉽게,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순간적인 느낌과 기분 탓에 쉽게 말해 놓고 지키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 말이 많거나 농담을 잘한다면, 혹시 선불리 함부로 쉽게 말을 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봄으로 스스로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등 쉽게 변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개함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변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도 수시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낸 말이나 마음에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시 15:4 ; 민 30:2). 무엇보다 범사에 진리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내거나 결정하는 등 스스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가는 훈련을 통해 입술의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까(약 1:19).

### 2. 작은 것부터 변함이 없이 실천하는 행함으로 날마다 능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변개함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개하는 속성이 있기에 변개하기도 하지만, 늘 변개하는 행함으로 인해 오히려 죄성이 자주 강해집니다. 따라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함으로 변개하지 않는 능력을 키워 가야 하지요.

마음에 죄성을 버림에 있어서도 발견된 죄성을 붙잡고 온전히 버릴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실천해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춘다거나 또다시 생각나면 행하기를 반복하기에 죄성이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개함을 신속히 벗어내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변함없이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함을 통해 그만큼 절제의 능력이 생기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 중도에 낙망해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는 경우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낙망하거나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개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낙망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변개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결단력과 인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배신하거나 간사한 것으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근본적인 속성은

변개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버려야 하겠습니까.

변개함의 속성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이나 삶 속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변개함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려 나가고 바꿔 나가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월 은사 집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은사 집회 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른쪽 편마비가 치유돼 이제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구반시 야다브 성도 (85세, 인도 우타프라데시주)

2023년 1월, 밤에 잠을 자던 중에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리만민교회 타라마티 성도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녀는 저와 가족에게 GCNTV HINDI에 대해 알려 주면서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주며 읽어보라고 하였지요. 이에 큰아들은 매일 제게 책을 읽어주며,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획된 구원의 섭리를 깨우치니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예배드리며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꾸준히 받고, 은사 집회 때마다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더니 어느새 제 몸은 완전히 치유돼 혼자 걷고, 먹고, 목욕하는 등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걷기조차 힘이 들던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곽순옥 집사 (79세, 1대대 3교구)

저는 약 20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올해 4월부터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금요일아침예배 시 진행되는 은사 집회를 사모하며 곧 있을 5월 은사 집회 때 치료받고자 준비하였지요.

2023년 5월 8일부터 시작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와 더불어 끼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통증이 잦아들기 시작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시며 치료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 더더욱 은사 집회를 사모하였습니다.

마침내 5월 26일, GCN방송을 통해 금요일아침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나서는 걸어보고, 집 밖에 나가보며 다시 확인해 보아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비루관 막힘은 수술했어도 그때뿐이었는데 기도 받은 뒤 호전된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할렐루야!

“양쪽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을 치료받았어요”



한춘자 집사 (79세, 중국 2교구)

저는 젊었을 때 미용실에서 12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고, 농사와 식당일 등 많은 일을 한 탓인지 양쪽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지만, 무릎 수술을 하고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통증이 더욱 심해져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고, 특히 집에 가기 위해서는 난간을 붙들고 매달리다시피 하여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매트 같은 것을 아래에 받쳐야 내려올 수 있었지요.

저는 5월 은사 집회 때 꼭 치료받겠다고 마음먹고 5월 8일부터 시작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정성껏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저녁예배 때 읍기 강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참이 아니었음을 발견하면서 다니엘 철야 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니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의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양쪽 무릎에 뿌리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5월 22일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불편함이 없었지요. 26일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 양쪽 무릎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 뒤로는 아무런 통증 없이, 지팡이 없이도 잘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령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서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